

## 성체성혈대축일 나해



1. 찬양하라 시온이여, 목자시며인도자신, 구세주를 찬양하 - 라.  
 5. 우렁차고 유쾌하게, 기쁜 노래함께 불러, 용약하며 찬양하 - 라.  
 9. 그리스도 명하시니, 만찬때에 하신대로, 기념하며 거행한 - 다.  
 13. 빵과 술의 형상안에, 표징들로 드러나는, 놀랄 신비 감취있 - 네.  
 17. 선인 악인 모시지만, 운명만은 서로달라, 삶과 죽음 갈라진 - 다.  
 21. 천사의 빵길 손음식, 자녀들의 참된 음식, 개에게는 주지마 - 라.



2. 정성 다해 찬양하라, 찬양하고 찬양해도, 우리 능력 부족하 - 다.  
 6. 성대 하다이 날 축일, 성체성사제정하심, 기념하는 날이로 - 다.  
 10. 거룩하신 말씀따라, 빵과 술을 축성하여, 구원 위해 봉헌한 - 다.  
 14. 살은 음식 피는 음료, 두 가지의 형상안에, 그리스도 온전하 - 다.  
 18. 악인 죽고 선인 사니, 함께 먹은 사람 운명, 다르고도 다르도 - 다.  
 22. 이사와 파스카 양, 선조들이 먹은 만나, 이 성사의 예표로 - 다.



3. 생명 주는 천상 양식, 모두 함께 기념하며, 오늘 특히 찬송하 - 라.  
 7. 새 임금님 배푼 잔치, 새 파스카 새 법으로, 낡은 예식 끝내도 - 다.  
 11. 모든 교우 믿는 교리, 빵이 변해 성체되고, 술이 변해 성혈된 - 다.  
 15. 나뉘지 않고 갈림없어, 온전하신 주 예수님, 모든 이가 모시도 - 다.  
 19. 나뉘지 않는 성체 조각마다, 온전하게 주 예수님, 계시음을 의심마 - 라.  
 23. 참된 음식 착한 목자, 주 예수님 저희에게, 크신 자비 베푸소 - 서.



4. 거룩하신 만찬때에, 열두 제자 받아 모신, 그 빵 임이를 립 없 - 다.  
 8. 새 것 와서 옛 것 쫓고, 예표 가고 진리오니, 어둠 대신 빛이 온 - 다.  
 12. 물 질 세계 넘어서니, 감각으로 알수 없고, 믿음으로 확신한 - 다.  
 16. 한 사람도 천 사람도, 같은 주님 모시어도, 무궁무진 끝이 없 - 네.  
 20. 겉 모습은 쪼개져도, 가리키는 실체만은, 손상없이 그대로 - 다.  
 23. 저희 먹여 기르시고, 생명의 땅이 끼시어, 영생 행복보이소 - 서.



24. 전지전능 주 예수님, 이 세상에 죽을 인생, 저 세상에 들이시 - 어,



하늘 시민 되게 하고, 주님 밥상 함께 앉는, 상속자로 만드소 - 서.

\* 21절부터 시작해서 짧게 할 수도 있다.